

효성, 스판덱스 중국시장 호응 기대

인터텍스타일 상해 전시회 대규모 참가 ... 주요 고객사 진출발판 마련

효성(대표 이상운)의 스판덱스PU가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상해 푸둥에서 개최되는 7회 인터텍스타일 상해 전시회에 국내 코라인터내셔널, 동일무역 및 이태리 POMPEA, REAL, ITAM 등 5개 고객사와 함께 참가한다.

인터텍스타일 상해 전시회는 세계적인 전시기획사 메세프랑크푸르트가 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25개국 약 1000사가 참가하고 4만여명이 참관하는 국제 원단전시회이다.

이번 행사는 효성 스판덱스PU의 우수고객우대프로그램(CRMS)의 일환으로서 주요 고객사들의 중국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 3월 인터스토프 아시아(홍콩) 전시회에 이어 해외에서는 2번째로 기획됐다.

인터스토프 아시아 전시회에 참가한 효성 creora(2003.3)



효성과 공동으로 참가하는 5개 고객사의 아이템은 투웨이 경편 원단(ITAM) 및 환편 원단(코라인터내셔널), 우븐직물(동일무역)에서 심리스 및 스타킹 제품(POMPEA, REAL)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양하지만 “one sTOP stretch world with creora”라는 컨셉으로 바이어들에게 동시에 선보인다.

특히, 전시회 기간 동안 효성 부스에서는 심리스, 란제리 및 스포츠웨어 패션쇼가 매일 열릴 예정이어서 바이어 및 참가 고객사의 호응이 예상된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13>